

●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가까이 가셨다. 그러나 잎사귀밖에는 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그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셨다. ”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 맺는 일이 없을 것이다.“ 그러자 나무가 즉시 말라 버렸다.
(마태복음 21장 19절)

열매없는 나무는 살았어도 죽은 나무다

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. 그로 인해 얻게 되는 행복은 그 무엇보다도 크기 때문이다. 자신이 진정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을 돕듯 남을 도와주어라. 그것은 자신도 남도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행복의 화수분이다.